

커지는 '이재명 빅텐트'...국힘 '반명 빅텐트' 안간힘

김상욱·허은아 합류...박근혜·홍준표 지지 모임도 이준석에 단일화 '러브콜'...새미래 전병헌과 회동

선택! 6·3 대선 D-13

6·3 대선을 2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빅텐트'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해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범보수 단일화를 추진하며 '반명(반이재명) 표시' 결집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난색을 표명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방탄우리로 막을 수 없는 후보의 진심, 경청과 포용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김상욱 의원 입당을 비롯해 김용남 전 의원, 허은아 전 의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한 총결집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번

지지 선언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통합 선언"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치에 중도 보수가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석현, 문병호 전 의원 등도 복귀했고, 민주당의 빅텐트는 계속 확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명(반이재명)계는 물론 중도·보수 진영 인사들이 속속 들어오는 등 민주당의 '빅텐트'는 점차 커지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내란 극우' 프레임에 고립시키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대위에는 선거 초반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권오을·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가세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후 보 지지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석현·문병호 전 의원 등도 복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도 최근 민주당 당사를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장미로 만든 기표 도장 모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보

득당 등 야당과 진보인사들의 모임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는 이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범보수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반명(반이재명) 표시' 결집에 힘쓰고 있다.

당면 최대 과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의 대표를 했고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이끌어 낸 훌륭한 분인데, 또 역시나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당을 나가게 됐다"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SBS라

디오에서 '김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돼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반명 빅텐트'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옛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를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기호 6번이었던 자유동일당 구주와 후보는 이날 사퇴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후보, 서민경제 이해·해결 유능한 리더”

광주상인연합회·변호사회 뷰티전문가 등 지지 선언

광주상인연합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상인연합회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 연락사무소에서 지지 선언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 대안"이라며 "장기 분할상환제도, 불법 계입 피해 보상, 지역화폐 확대 등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기업 중심의 현 정부 경제정책이 반복적으로 소상공인을 희생시켜 왔다"며 "이 후보는 서민경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K뷰티전문가연합회도 이날 광주시당 연락사무소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는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된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국



광주상인연합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연락사무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민의 삶을 보듬고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미광주지회장(서영대뷰티마학과 교수)은 "뷰티산업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 K-컬처와 K-브랜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중요한 미래산업이었던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청년들과 중소뷰티사업자들은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낼 수 있는 실천형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19

인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강영록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19명의 광주지방변호사들은 또 다른 219명의 이재명이 돼서 그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부남 광주 선대위원장은 "지금까지 50여 개의 단체가 지지선언에 동참해 주시고 있는데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지지선언은 이 후보의 당성과 광주에서 투표·득표율 90%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배우자도 뺀다”... 김혜경 여사, 또 광주·전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0일 또 다시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한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서구의 자립 지원 기관을 찾아 자립 준비 청년들을 만났다.

또 오후에는 전남 해남으로 이동해 지역민을 만나고 대중사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일정 역시 비공개로 방문,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김 여사는 배식봉사에서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국을 나눠드리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안부도 챙겼다.

당시 어르신들은 "이렇게 호남을 찾아줘서 고맙다. 친절하고 다정해서 감동했다"고 김 여사의 따뜻한 배움과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김 여사가 찾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은 지난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경숙 여사가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연일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김 여사는 김경숙 여사와

함께 배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날 5·18을 앞두고 오월여미니집을 찾아 5·18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종교계 예방 등 비공개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광주·전남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비공개 일정 속에서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월간지전라도인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론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주) 호텔아트하임(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